두산重, 무안 한중산단 투자 철회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 기업도시 한·중 국제산업단지(한중산단) 개발사업이 투자사의 사업 참여 철회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무안군이 애초 계획했던 PF의 절반만 마련, 공사에 착공한 뒤 나중에 분양대금으로 개발계획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신중하고 검토하고 있어 지지부진했던 한중산단 개발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컨소시엄 최대 투자사 참여 포기

郡, 先분양 방식 도입 등 '돌파구' 찾기

◇투자사 사업 참여 철회 요청=1일 무안군과 한중산단 개발사업 전담법인인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 등에 따르면 한중산단 개발사업 건설컨소시엄의 우회 출자사로 참여한 두산중공업이 최근 출자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산중공업은 한중산단 전담법인 출자액 1천538억 원 중 중국지분 784억 원(51%)을 제외한 국내지분 754억 원(49%) 가운데 금융컨소시엄인 농협(225억 원·14.64%) 다음으로 출자액이 많은 건설컨소시엄의 최대 투자사다.

이 회사는 전체 지분의 11.98%인 184억 원을 투입했지만, 직접투자가 아닌 수도권의 K물산을 통해 간접투자하고 이 투자액에 대한 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한중산단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그러나 한중산단 개발사업에 필요한 1조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하는 PF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자 사업 참여를 포기하기로 하고 이 같은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담법인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중공업이 개발사업에서 빠져나갈 경우 한중산단은 PF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처지에 감자나 청산 등을 통한 출자사 구성이나 지분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무안군은 일단 두산중공업이 한중산단 개발사업에서 빠져나가려면 실제 투자사인 K물산과의 보증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중산단 개발사업에 뜻이 없는 기업이 이름만 걸어놓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PF 등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안군과 전담법인 측은 다음달 중순께 주주총회를 열어 두산중공업 문제를 포함한 PF 추진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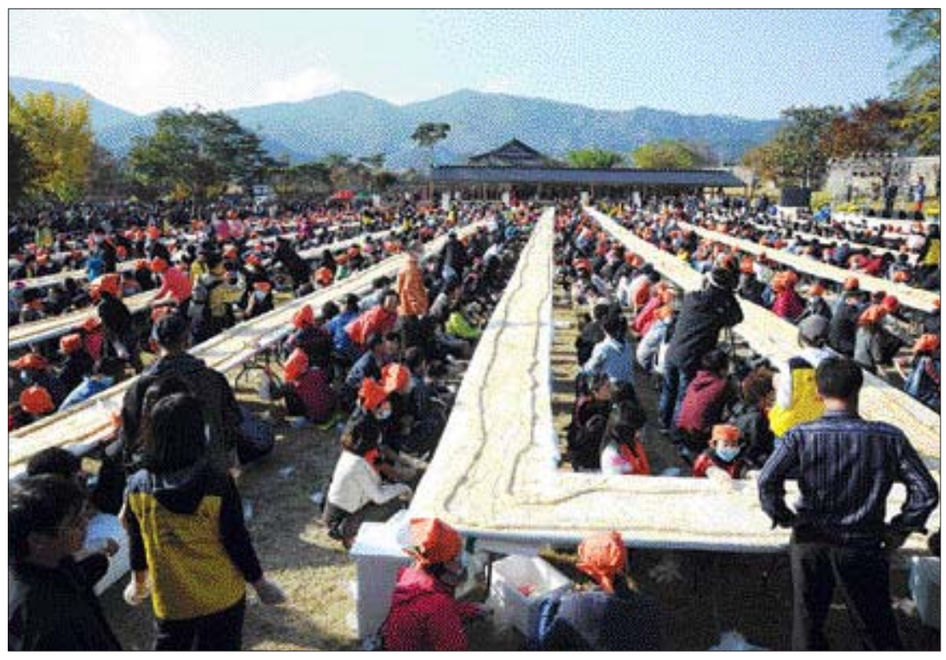
◇무안군, PF 돌파구 찾는다=무안군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PF 조달 방안을 바꿀 계획이다. PF 금액을 낮추고 선 분양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애초 한중산단 총 개발계획 PF 1조6천억 원 중 한국 측이 8천억 원 정도의 PF를 마련해야 하지만, 세계경제 위기 등으로 크게 위축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면서 PF가 진전이 없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PF 자금을 애초 1조6천억 원에서 절반 가량인 8천억 원(한국 49%·중국 51%)으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 검토중에 있다.

8천억 원의 PF 자금을 마련, 이 가운데 4천억 원으로 지가보상 등을 마무리한 뒤 나머지 4천억 원으로 기반조성 등 토목공사를 하고 토지 분양을 해 나머지 개발비를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중국과 한국 측이 절반 가량인 4천억 원씩 PF 자금을 마련할 경우 PF 확보는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애초 PF 1조6천억 원 중 51%를 국책은행인 중국개발은행이 맡아 PF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한국 측만 4천억 원 규모의 PF 자금을 마련하면 이러한 사업 추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 측의 PF가 어려울 경우 중국 측이 PF 투자비율을 70% 이상으로 늘리는 안도 내놓았기 때문에 PF 자금을 낮추고 선(先) 분양방식을 택할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은 산업은행에 이러한 구상을 제안했으며, 산업은행 등 금융권은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



국내 최장 1,110.3m 인절미

'제 16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마지막날인 1일 주민과 관광객 등 1천362명이 2.3t의 찹쌀을 사용해 '세계에서 가장 긴 인절미 만들기'에 도전, 1천110.3m를 기록해 국내 최고 인증을 받았다. 이번 도전성공으로 순천시는 지난해 1.4km의 '최장 고추줄'에 이어 한국 최초로 기네스 기록을 2개나 보유한 자치단체가 됐다. 〈순천시 제공〉

김치 세계화 기반 다졌다

광주김치문화축제 폐막…70여만명 다녀가

'2009 광주김치문화축제'가 국내외 방문객 70여만명, 온·오프라인 김치 판매액 30여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황을 이룬 가운데 1일 폐막했다.

'김치, 천년의 맛'을 주제로 10일간 열린 축제는 김치산업 활성화와 김치 세계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광주김치문화축제추진위'는 이날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김치명인 콘테스트', '김치스토리텔링' 등 경연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폐막식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치명인에 선정된 김옥심(광주시 동구 산수동·반지김치, 배추김치)씨는 대상인 대통령상과 상금 500만원을, 김은희(경기 용인·연근보쌈 샌드김치, 배추김치)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축제추진위는 이번 행사 기간 외국인 3만명, 내국인 67만명 등 모두 70여만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아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했다. 광주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운집한 것은 세계 5대 식품인 김치와 광주 김치축제에 대한 국내외의 깊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행사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한 데다 본 전시, 마케팅,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 5개 분야 39종으로 행사를 다채롭게 구성한 것도 주효했다.

외국인 체험공간인 '김치담그기 체험관'에는 3천여명의 외국인이 참가했으며, 개막식 행사인 '김치+주먹밥, 1000원의 행복체험 행사'는 인파 때문에 행사를 조기 종료하기도 했다.

'세계웰빙 발효식품관', '팔도문화 김치관' 등 전시로 이뤄진 '주제 전시관'은 김치의 예술성, 전시전문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축제 행사장과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한 '감칠배기' 등 각종 김치의 판매액이 30억원을 기록함으로써 김치마케팅의 성과로 이어졌다.

시는 이번 축제 성공의 비결로 김치를 한국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상품으로 부각하는 등 김치축제를 문화축제로 바꾼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폐막식에서 "이번 행사로 김치축제가 전국화를 이루는 데 성공한 만큼 내년 17회 대회부터는 세계로 가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1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2009 광주김치 문화축제' 폐막식에서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박광태 광주시장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시장, 김옥심(김치명인 콘테스트 대통령상), 김은희(〃 최우수상), 김흥용(김치산업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씨.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한일연안 8개 시도현 "F1·박람회 적극 지지"

박준영 전남지사 日 방문 마치고 귀국…고치현과 산업교류 MOU도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으로부터 2010 F1국제자동차대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적극적 지지 협력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일본 고치현과 산업교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방일 성과를 거두고 1일 귀국했다.

박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남도 방문단은 4박5일 일정의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일본 고치현과 산업교류 MOU를 체결하고 선진 농업시설을 시찰하며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체결은 지난 2003년 관광·문화교류 협정에 이어 산업분야까지 교류 협력의 폭을 넓힘으로써 양 지역의 발전과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양 지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앞서 박 지사는 지난달 29일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제18회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 참가, 지구온난화 방지시책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인적교류와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하고 2010 F1국제자동차대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도현 지사회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박 지사가 제안한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합의하고 F1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를 비롯해 2010년 제주 아시아청소년포럼, 2011년 경남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2013년 일본 야마구치현 세계스카우트 일본 잼버리 등의 행사도 적극 지지·협력키로 했다. 한편, 한일해협시도현 지사회의에는 전남도를 비롯해 부산시, 경남도, 제주도, 일본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현 등 8개 시도현이 참여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준영 전남도지사(왼쪽)가 지난달 30일 일본 고치현청에서 오자키 마사나오 고치현지사와 전남도-고치현 간 산업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전남도 제공〉